

## 01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대 중국의 주(周)는 천자가 친족 관계인 제후에게 영토를 나누어 주고 권력을 위임하는 봉건제를, 주 멸망 이후 진(秦)은 천자가 관료를 선발해 각 지역의 태수로 파견하는 군현제를 시행했다. 남송 시대의 주자는 봉건제를 권력이 균형을 이룬 상호 견제 상태로 이해하여 이를 국부를 분산시키는 모범적 통치 제도로, 군현제는 천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불공정한 통치 제도로 보았다.

당대의 유종원은 주는 도로와 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방의 직할통치가 어려웠던 사실을 지적하며 봉건제는 시대적 한계에 따라 채택된 것이지만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봉건제 하에서는 제후들의 권력이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 권력 남용과 반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군현제에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관리가 중앙의 통제 하에 지방을 다스리므로 권력 남용의 여지가 적고 국가가 질서를 찾는다.

조선은 군현제를 채택해 과거제를 비롯해 능력주의적으로 관료를 선발하여 각지에 파견해 왔다. 하지만 전란을 거치며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어 주요 가문의 양반들이 출신지의 관직에 올라 권력을 세습하는 것을 묵인하게 되었다. ㉠유수원은 당대 다수의 관리들이 가문과 해당 지역의 이익을 위해 지역별 정책의 통일성을 해치고 조정 내의 정치적 갈등을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신과 무관하게 공정성에 입각하여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여 18세기 중반에는 봉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탕평책이 시행되어 군현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 가문들을 융화하고 국왕의 관료 임명권을 강화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는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적으로 세습하기 시작했다. ㉡김윤식은 군현제가 왕실과 밀접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봉건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봉건제 하에서 중앙과 지방 세력 간의 견제를 피하는 한편, 지역별로 다른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를 실무에 중용하고자 한 것이다.

(나)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인 『군주론』에서 정치 문제를 자신의 역량과 국가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도덕적 정치 활동은 정당하고, 현실 정치와 도덕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물론 잔혹하고 비열한 수단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쓰되,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민중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결과가 따라와야 한다.

마키아벨리즘은 전반적으로 당대의 중세 봉건제와 충돌한다. 통일된 중앙집권 국가에 이르지 못한 봉건제는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체제로, 한번 무너지면 재건이 어려운 우연의 산물이다. 봉건 국가의 정치 지도자는 실력과 덕목이 아니라 혈통에 기반하여 통치하고, 봉건제라는 질서는 관습과 명예라는 도덕적 권위로 세워졌을 뿐이다.

용병을 비판한 마키아벨리는 민중의 중요한 역량으로 국가 내외의 적에 대항하는 애국심을 들었다. 이는 부도덕한 행동이 허용되는 권력 획득이 민중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낳는 행동으로 한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중에 오히려 호의적인 태도는 그의 저서 『로마사 논고』에서도 발견되는데, 제도는 인간의 잠재적 부패에 대비해 설계되어야 하며 고대 로마는 귀족의 원로원과 민중의 평민회가 균형을 이루는 체제를 만든 이상적인 정제라는 언급이 그 예이다. 다만 마키아벨리는 모든 정체가 인간처럼 한 국가가 쇠퇴하고 소멸한 후 다른 국가가 탄생하는 순환을 거친다며, 고대 로마에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고 나서부터는 제도를 수정해도 부패한 공화정을 되살려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평했다.

1. (가)와 (나)의 공통된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사상가가 봉건제를 비판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당 봉건 국가가 재기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사상가의 정치적 경향성을 밝혀 봉건제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특정 사상가의 봉건제에 대한 반응을 서술하고 당대 현실이 그 학자의 정치사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 ④ 특정 사상가가 경험한 정치 제도를 소개하고 그 학자의 입장에서 이전의 정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특정 사상가의 입장에서 과거에 시행된 군현제와 봉건제의 실태를 밝히고 이면의 사상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봉건제가 정책의 지역별 통일성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 ② ㉠과 ㉡은 모두 당대 조선의 군현제가 중앙집권화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③ ㉠은 능력을 전적으로 따라, ㉡은 출신을 고려하여 지방관을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 ④ ㉡은 ㉠과 달리 전통적인 봉건제를 통해 완화되는 성격의 권력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과 달리 군현제의 폐해가 봉당 간 갈등으로 이어진 사태를 배경으로 한 입장이다.

3. (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유수원과 김윤식 모두 양반에 의한 권력 세습을 비판했다.
- ㄴ. 주는 진보다 많은, 지방관이 아닌 인재를 실무에 중용할 수 있었다.
- ㄷ.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봉건제가 국부 분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봉건제에 대한 군현제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4. (나)의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 (가)에서 언급된 정체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의 봉건제는 부도덕한 친족 우대를 수단으로 국부가 민중에게 배분되는 정체이다.
- ② 진의 군현제는 귀족의 자치를 위한 권력을 제한하여 민중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체이다.
- ③ 전란 이전 조선의 군현제는 국왕과 민중이 수직적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정체이다.
- ④ 18세기 중반 조선은 잠재적 부패에 대응하여 공동체 정신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행했다.
- ⑤ 19세기 후반 조선의 정체는 이미 부패했으므로 도덕적 권위로 통치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5.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도시의 정부를 개혁하고 그것을 좋은 정치 체제로 되돌리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고대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비록 제도가 새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옛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며, 그래야 사람들이 새로운 법이 아니라 오래된 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믿게 된다.

(중략)

좋은 법은 좋은 무기에서 생겨나며, 좋은 무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좋은 법이 있다. 따라서 자유를 유지하는 데는 법과 무력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본래 선하지 않기에, 그들을 마치 선한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하다.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 ① 정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을 정체를 구성하기 위해 무엇을 참고했는지에 적용한다면, ‘고대의 형식’은 ‘좋은 무기’만큼 중요하겠군.
- ② 봉건제를 비효율적이라고 본 마키아벨리는 주가 봉건제를 채택한 이유로 천자가 무력으로 제후를 다스릴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들 수 있겠군.
-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18세기 중반 조선의 군현제는 세력 간 권력 관계를 은폐하는 태도에 따라 그 효과를 연장할 수 있었겠군.
- ④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의 정체가 이상적이라도 그것을 현실 정치에서 최대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군.
- ⑤ ‘좋은 법’은 궁극적으로 민중의 애국심을 증진시킬 수 있겠군.